

2017년 4월 29일, 조천읍 북촌리 현덕선 씨 댁, 강수경 조사.

현덕선(여, 1928년생, 조천읍 북촌리)

- 줄거리: 북촌리 사람이 선흘리 제사 집에 다녀오다가 도깨비를 만났다. 도깨비가 어디가 제일 무섭냐고 묻길래 우리집 앞마당이 제일 무섭다고 하니 도깨비가 집 앞마당 까지 데려다 주었다.

[제보자] 경 허고 우리 할머니 오라방은 선흘 간 밤이 식게 먹엉 오단 도체비가.

“너가 어디가 젤 무섭냐?”

이러니까.

“우리 앞마당이 젤 무서워요.”

오꽃 갖당 앞마당에 노나네 그냥 혼 발자국도 안 헨 헷젠텐. 할망이 백으답 나니까 막 시켜. 후제 살멍 이렇게 살앗지. 나야 뭐 압니까.

[조사자] 경 허니까 도깨비가 앞마당에.

[제보자] 앞마당더레 오꽃 들러다 젠.

[조사자] 데러다 젠. 아이고 (웃음).

[제보자] 옛날은예. 막 여기도 도체비 나곡 여기도 도체비 나곡 막 헤난디. 이젠 너무 사름이 너무 하부니까 엊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해.

- 핵심어 : 도체비, 앞마당, 식게, 선흘리, 도깨비